투데이 칼럼

수백 년 이야기가 속삭이는 천연기념물의 고장, 고창

김 영 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지도행정팀장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선운산도립공원,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5개의 핵심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깨끗한 자연생태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는 정책목표를 농축수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접목한 미래 고창 먹거리 산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무농약 단계별 군 전역 확대와 유네스코 생물권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시 선포,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농업전략 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고창군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더불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고창의 자랑이 또 있다.

바로 우리나라 248개 시·군·구 중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제주시와 울릉군(울릉도), 옹진군(백령도) 등 도서지역과 창덕궁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고창군이 천연기념물 7개를 보유함으로써 괴산, 안동, 완도, 함양군 등과 함께 천연기념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천연 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한 동물·식물·지질·광물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에 있는 측백나무 숲에서부터 올해 5월 3일 지정된 553호 서산군 송곡서원 향나무까지 총 458점에 이른다.

천연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중산리 이팝나무는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에 지정됐다.

이팝나무는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하얗게 뒤덮여 이밥, 즉 쌀밥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하며 농민들은 이팝나무의 꽃피는 상태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점치기도 했다.

천연기념물 제 184호인 선운사 동백나무숲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 지정됐다. 조선 성종 때 동백기름을 짜고 산불을 막을 목적으로 심은 인공림이다.

천연기념물 제 354호인 도솔암 장사송은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하고 있고, 1988년 지정됐다. 장사송은 이 지역의 옛 이름이 장사현인 데서 유래했다.

천연기념물 제 367호 삼인리 송악은 199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선운사로 들어가는 길가의 절벽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463호 문수사 단풍나무숲은 고수면 은사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지정됐다. 이곳의 단풍나무 숲은 문수사 입구까지의 진입도로에 수령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 494호 수동리 팽나무는 부안면 수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지정됐다. 수동리 팽나무는 고려 말 공민왕 때 식재된 것으로 전하는데, 현재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들 중에서 가슴높이 둘레가 가장 크며 팽나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를 묶어 두었던 나무다.

천연기념물 제 503호 교촌리 멀구슬나무는 고창군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교촌리 멀구슬나무는 다른 멀구슬나무가 대부분 남해안과 제주도에 주로 식재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북쪽에 자라는 유일한 노거수로 의미가 있다.

이처럼 고창의 다양한 천연기념물은 고창군 전 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더불어 생태도시 고창의 큰 자산이자 자원이다.

우리가 나고 자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은 현 세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맞게 우리의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설

예산 최대 확보 올인에 기대한다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가 12일 기재부를 찾아가 지역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면서 정부 재정의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보도이다. 군산 현대조선소와 군산 GM의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닌 이때 행정부지사의 그같은 행보는 마땅하고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19일에는 최정호 정무부지사의 일정이 잡혀 있고 23일에는 송하진 도지사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전북도의 재정 지원 협조를 말하는 점층적인 행보가 그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기대가 크다.

침체에 빠진 전북 경제를 위해서 무조건하고 예산 증액은 당연한 일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예산 증액의 명분 앞에 덧있는 표현을 구사했는데 도민에게 그런 수사 표현은 별로 중요치 않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실제 손에 두툼하게 쥐어지는 돈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발전은 예산 증액이 말하기 때문이다. 대폭 증액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발전 계획은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미래 발전 청사진을 보였다 해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전북도에게 여기 할 말이 있다. 군산 안정을 위해서 말했던 투 트랙 전략이 이상하다. 지금은 어째 너무 조용하지 싶다.

전북도는 공표에 걸맞게 전력투구해야겠다. 전북도가 저번에 부처별 예산을 확보한 것을 두고 성과를 낸 것처럼 말했었는데 자화자찬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개발비가 늘고 신규 사업안들이 반영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도민들의 시선은 다른데 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이라는 말 그대로 국책사업비라는 게 불만 투성이다. 산업위기 지역 지정이 무색하게 군산이 찬밥 신세이니 말이다. 군산 산업구조 개편비가 저번에 72%나 삭감돼버렸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전북도는 군산 쪽에 마음을 두고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군산 경제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힘써야겠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 지역이 두루 안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도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대폭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뛰어주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 현안에 힘 집중해야

전북도는 시급한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실직 피해자들이 풀이 죽을대로 죽어 있다. 도대체 희망의 근거란 게 전혀 없는 이둠 터널 형국이다. 전북도는 우선순위의 주요 관심사에 힘을 집중해야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손길을 주어야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바 그 우선순위의 현안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야 한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세월이 흐를수록 반비례하여 자꾸만 낙후되고 있다. 따라서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전북 자존시대를 말했고 전북대도약 시대를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슬로간이 언어수사 표현에 그치면 안되겠다. 이제 전북도는 제볶을 생각에 있어 큰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힘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억척스러움도 보여야겠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제도을 온전히 챙겨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여러 번 토로했거니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모습은 발전 같지가 않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불어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만 한다.

도지사는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자고 했지만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한 소리다. 도민들이 매년 안타까워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7조원 예산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전주에서만도 해마다 3천명의 젊은이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지금, 전북 인구 2백만 운운은 실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표현일 뿐이다. 전북도는 군산을 살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알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돌아가는 게 늘 이러므로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전북도는 잃어버린 일자리 만큼 제몫을 되찾기 위해 힘찬 행보를 보여야겠다.

독자제언

여름철 차량내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최근 3세 어린이가 3시간 이상 차량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밀폐된 차량에 방치되었다가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 버스 기사가 아이들이 내린 뒤 세차까지 했지만 짙은 선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자고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어른들의 부주의와 함께 차량의 과도한 선팅도 문제화 되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차량내 온도는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인에 비해 체력이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60~70도에 달하는 온도에 2~30분만 노출되어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해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스스로가 경적을 찾아 울리거나 손으로 누르지 못한다면 엉덩이를 이용하여 경적을 누르는 요령, 창문을 두드려 지나가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어린이들이 하차 후에는 차량내에 다른 어린이들이 남아있는지 또는 잠이 들어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차량 내부를 꼼꼼히 살피며 어른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신서윤고창서 교통관리계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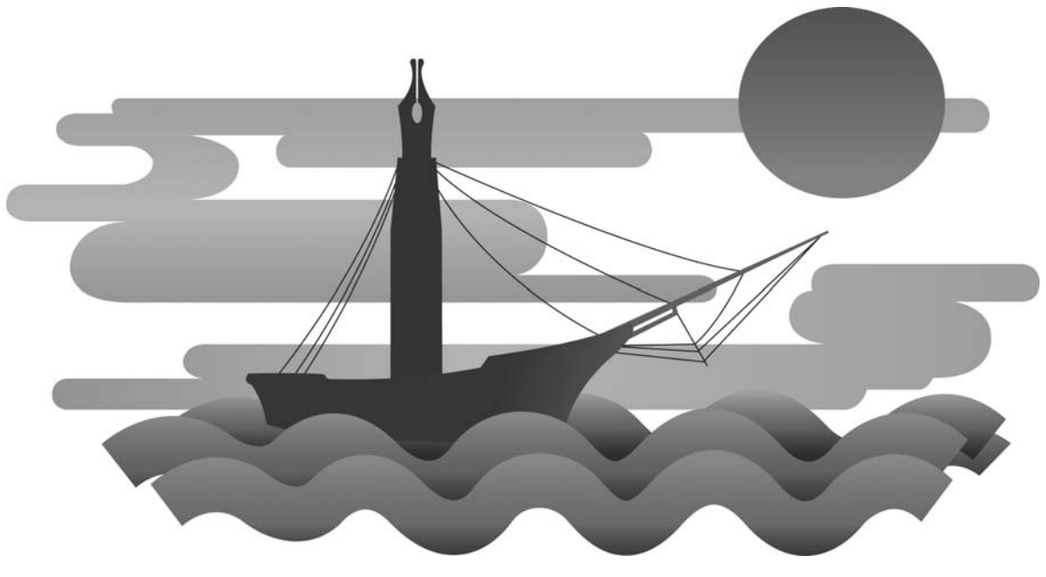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트럼프 환영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한 가운데, 런던리젠트 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트럼프 환영 안해" 라고 쓰여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